

시·군 하반기 재정집행 60.3% ... 연말 또 곳곳 공사판 되나

전남 22개 시·군 5조5332억 원 미집행 상태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 위해 집행 속도 높여야

진도군 55.67% 최하위

목포시는 67.86% 양호

전남 일선 시·군의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부진하다. 집행 기간이 겨우 2개월 남았는데, 실적은 60.3%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 곳곳이 연말 공사판으로 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는 재정집행 부진 시·군을 상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채책을 들어 독려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전체 예산 13조9388억원 가운데 60.3%인 8조4056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5조5332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집행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는 14곳이나 됐다. 꼴찌는 진도군으로 전체 예산 4560억원 중 2538억원만 집행, 55.67%에 그쳤다. 다음으로 영암군이 5466억원 중 3945억원(55.86%), 신안군 6659억원 중 3736억원(56.11%), 해남군 6981억원 중 3945억원(56.5%)으로 하위 5위를 기록했다.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목포시로, 8239억원 중 5591억원을 집행해 67.86%를 나타냈다.

본청은 시·군보다 집행률이 높은 75.07%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28.6%), 공무원교육원(40.63%), 해양수산과학원(47.48%)은 전체 예산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 특히 일자리정책실은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방향에도 불구하고 겨우 57.25%만 집행, 파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재정집행 실적을 일일·주간 단위로 점검,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열 방침이다. 지방재정의 적극 집행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시·군에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11월 말까지 집중 집행해 연말 예산 집행의 쏠림을 방지하고, 이월 또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예산 성립전 집행 등 각종 신속 집행 제도를 활용해 집행률

■ 전남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

(단위: 억원, 10월23일 기준)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순위
계	213.656	139.813	65.44%	
본청	74.269	55.757	75.07%	
시군소계	139.388	84.056	60.30%	
목포시	8.239	5.591	67.86%	1
여수시	12.570	7.955	63.29%	5
순천시	12.285	7.820	63.65%	4
나주시	9.165	5.425	59.18%	11
광양시	8.248	5.278	63.99%	3
담양군	4.475	2.583	57.72%	15
곡성군	4.051	2.409	59.47%	9
구례군	3.466	2.027	58.46%	13
고흥군	6.970	4.218	60.51%	8
보성군	5.343	3.076	57.56%	16
화순군	6.358	3.736	58.76%	12
장흥군	4.421	2.751	62.22%	6
강진군	4.605	2.684	58.28%	14
해남군	6.981	3.945	56.50%	19
영암군	5.466	3.053	55.86%	21
무안군	5.226	3.101	59.35%	10
함평군	4.198	2.731	65.05%	2
영광군	5.956	3.391	56.93%	17
장성군	4.692	2.662	56.73%	18
완도군	5.453	3.348	61.40%	7
진도군	4.560	2.538	55.67%	22
신안군	6.659	3.736	56.11%	20

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는 특히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시·군에게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때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독려했다.

문금주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넘어 109.8%를 기록, 특별교부세로 2억5000만 원을 받았는데 하반기는 다소 추축하다”며 “실적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젠, 예산·입법 전쟁

내일부터 국회 예산안 심의 시작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광주시·전남도, SOC 예산 증액 총력전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국회 통과 여부도 지역민 뜨거운 관심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 누락된 예산 부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또한 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 지역 공약과 주요 현안 추진을 뒷받침할 법안들의 처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지역현안 SOC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서 절반 이상 가량 등 줄어든 만큼 SOC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여야 간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역 제1당인 국민의당과 예산 부활 및 법안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3일 국민의당과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다. 광주시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현안 사업 37건, 4544억원의 반영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200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53억원), 무등야구장 리모델링(45억원), 가상현실(VR) 제작지원 거점센터 구축(5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101억원), 스마트 첨단의료 로봇산업 혁신 지원(45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17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

설 2545억원을 비롯해 광주순환도로2구간 건설(852억원) 광주~경전선(광주 송정~순천간) 전철화(48억원), 월전동~무진로 간 도로 개설(82억원),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5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45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또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국민의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오는 11월 3일 국회에서 열기로 하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전남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74건, 9947억원을 추가 증액하기 위해 예산 담당관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고 있다. 애초 3000억원을 건의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3500억원을 요구했던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각각 154억원과 455억원만 소폭 반영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공항 경우 노선 및 예산 증액 등도 여당과 국민의당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위한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여부도 지역의 최대 관심사다.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연륙후 10년 경과, 10인미만 섬 개발 관련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되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 조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90ml 이상 1,000ml 미만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인상 전] → [인상 후]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